

# 여대생의 헤어스타일 분석: 1980년~ 2003년까지의

## 졸업앨범사진을 중심으로

박수진\* · 박길순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시대의 거울이라 불리우는 복식은 사회문화적 변화를 보여주는 물질문화이며 그 중 헤어스타일은 의복보다는 변화가 쉽고 다양한 자기 연출이 가능하여 그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우리나라 여성의 헤어스타일의 변천 양상을 고찰하고 헤어스타일을 형성하는 요인에 따라 헤어스타일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헤어스타일의 유행경향과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연출한 헤어스타일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유행의 변화에 민감하고 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여대생이며 자료로는 연출된 사진이 아닌 실제 사람들이 연출한 헤어스타일을 보여주는 대학교의 졸업앨범사진을 중심으로 하였다. 즉, 대전지역에 위치한 충남대학교 졸업앨범사진을 선정하였다. 분석방법은 헤어스타일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헤어스타일 측정요인을 추출하여 각 시대의 요인별 빈도를 측정 후 시대별 유행경향과 실제 여대생의 헤어스타일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헤어스타일의 형성요인을 머리상태, 머리길이, 앞머리 상태, 가리마 위치, 염색유무로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헤어스타일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변화되었는데 새로운 기술이나 기구의 등장 따라 다양한 퍼머가 등장한 시기에는 새로운 컬을 시도하거나 스트레이트 스타일을 한 여대생이 많았으며 헤어스타일링 제품의 시판은 앞머리를 세우는 스타일의 유행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또한 다양화, 개성화 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형태적인 측면 외에 컬러적인 측면의 욕구가 증가하고 다양한 염색제가 개발되면서 여대생에게도 헤어염색이 보편화되었다.

시대별 유행경향과 실제 여대생의 헤어스타일을 비교한 결과 1980년대 전반에는 다양한 퍼

머가 등장하여 컬이 있는 스타일이 유행하였는데 여대생들도 컬이 있는 단발 또는 중간 길이의 헤어스타일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헤어스타일링 제품의 부재로 앞머리는 앞으로 내린 경우가 많았다. 1980년대 후반에는 스트레이트 퍼머가 등장하면서 컬이 있는 스타일과 함께 차분한 스트레이트 스타일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여대생들도 실제로 컬이 있는 스타일과 스트레이트 스타일의 비율 격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헤어스타일링 제품의 시판으로 앞머리를 세우는 스타일이 점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전반은 스트레이트 스타일과 웨이브를 한 스타일이 공존한 것으로 소개되었는데 실제 여대생들의 머리상태도 컬이 있는 스타일과 스트레이트 스타일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코팅 퍼머가 등장하면서 퍼머와 염색을 동시에 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실제 여대생들도 염색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앞머리 세우는 스타일은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현상인 만큼 여대생들도 앞머리를 세운 경우가 많았다. 1990년대 후반에는 여전히 스트레이트 스타일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매직 아이롱이 등장하여 유행하였는데 여대생들도 스트레이트 스타일을 한 경우가 많았으며 자연스러운 스타일이 선호되는 경향이 반영되어 실제 여대생들도 층이 있는 스트레이트 스타일로 단정함보다는 자연스러움을 표현하고자 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하는 현상이 반영되어 앞머리 스타일도 다양하게 연출되었다. 2000년대 전반기는 전반적으로 직사각형의 실루엣이 트렌드라 할 수 있는데 실제 여대생들도 긴머리 스타일을 다양한 층으로 연출하였으며 다양한 컬러를 이용한 헤어염색이 보편화되는 현상으로 여대생들의 염색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